

[사회]

광주 살레시오초 송경수 교사의 '스승의 날' 제안

“선생님 지친 발쉬게 양말 선물하는 날로”

10여년 전 전남의 한 시골 초등학교에 근무할 때다. '스승의 날'을 며칠 앞두고 광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좌석에 있던 아줌마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다. 선물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돈으로 할 것인가 선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송경수 교사〉

그 사람들이야 내가 교사인지 알 턱이 없었다. 나 역시 '뭐 하려고 선물 고민하면서 교사 육을 할까, 육할 정도의 교사라면 주지를 맡든지'하고 별생각 없이 넘어갔다.

몇 년 뒤 도시로 왔다. 그리고 몇 년째 '스승의 날'이 가까워지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갖고 오지 말라고 '협박'(?)을 한다. 가지고 온 선물을 돌려보내야 할 때는 아이들의 원망 섞인 소리를 듣는다. 아주 사소한 것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

'스승의 날'이 이렇게 된 원인 중에는 '스승의 날'에 대한 상징적인 의식이나 물건이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도 있다. 기념일은 대부분 역사적 배경, 의미, 그리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의식이나 상징물이 있다. 현재 '스승의 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촌지, 선물 등이다. 스승의 헌신과 봉사, 사랑을 상징하는 물건이 없다. '어버이날'은 케네디 선을 연상케 한다. 수능시험 전날은 옛이 빠질 수 없다. '오이 데이'(5월2일)도 있고 '빼빼로 데이'(11월11일)도 만들어지는 세상에 '스승의 날'을 상징하는 물건이 없다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다.

오랜 관습으로 만들어진 상징물과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 날을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

이 일어나고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게 된다. '스승의 날', 학생들을 위해 늘 바빠 움직이는 피곤한 발을 위해 양말을 선물하는 날로 하면 어떨까? 선생님은 그 보답으로 한 달 동안은 학생들이 선물한 양말을 신어야 한다는 전통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스승의 은혜를 기리며 양말 같은 작은 선물을 주고 받는다. 휴교까지 하는 오늘의 '소동'은 없어질 것이다.

휴교하는 '소동' 없도록 상징적 전통 만들어야



윤상원 열사를 기리며... '사'들불멸사기념사업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윤상원 열사의 묘를 참배하며,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5·18 26주년 추모분위기 고조

기념 마라톤·주먹밥 나눔 한마당 등 열려 주말·휴일 민주묘지에 2만여명 참배 물결

5·18광주민중항쟁 26주년 기념일이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4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에서 (재)5·18기념재단(이사장 박석부) 등이 주관한 '5·18 기념 마라톤 대회'가 시민과 자원봉사자 4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시민공원을 출발해 상무소각장~5·18기념공원~광주시청~시민공원(5.18km) 등을 달리며 5월 정신을 되새겼다.

또 '(사)들불멸사기념사업회'(이사장 윤한봉)는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들불멸사 합동추모식과 들불야화당 표지석 건립식을 가졌다. 추모식에서는 200여명의 회원들이 (故) 신영일·윤상원·박용준 열사의 묘지를 참배하고, 정신을 기렸다.

지난 13일부터 옛 전남도청에서 개막된 '광주, 한반도-ing'에는 1천여명의 시민들이 찾았으며, 금남로 일대에서는 '5·18전국 실업·노동자 주먹밥 나눔 한마당'행사가 개최됐다.

주당 수업시간 단축 등 교원 사기진작책 마련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주당 수업시간 감축 등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7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학교규모에 따라 1~2명씩 모두 1만5천300명의 정규직 교무행정 지원인력이 증원된다.

교원들의 주당 수업시간도 현재 초·중·고 25.9시간, 중·고 20.9시간, 고교 17.7시간에서 2014년까지 초·중·고 20시간, 중·고 18시간, 고교 16시간으로 줄여준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현재 65~75% 정도 지급하는 직무연수경비를 2007년까지 1강좌를 기준으로 100% 지원키로 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평택집회 강행... 큰 충돌 없어

국방부, 기지 측량 시작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14일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대추리집회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간에 몸싸움이 수차례 벌어져 30여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지만, 시위대의 평화시위와 경찰의 강경진압 자체로 당초 우려했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범대위는 대추리 집결지 여의치 않을 때까지 전자 바둑 분봉농협과 이전터 내 대추리 평화공원 등 2곳에서 동시에 집회를 개최한 뒤 이날 오후 5시30분께 모두 해산했으며, 일부 시위대는 평택역 등지에 모여 거리 홍보전을 벌였다.

민중노총·한총련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4000여명은 이날 오전 8시에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일대 주요 진입로에 도착, 대추리교로의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하루종일 산발적인 몸싸움을 벌였다.

시위대는 죽봉과 쇠파이프 등 시위 도구 없이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은 이날 모두 196개 중대 2만여명을 배치했다.

한편, 국방부는 15일부터 경기 평택시 팽성을 일대 285만평을 시작으로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측량을 시작한다. 국방부는 2008년 말까지 이전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도 이달중 지반조사·환경영향평가·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연남뉴스

Weather forecast for 5월 15일 (May 15th) with a map of Korea showing regional weather and a table of daily forecasts.

현대 하이스코 극적 타결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등을 둘러싸고 1년여 동안 마찰을 빚어온 현대하이스코 사태가 지난 13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하이스코, 협력업체, 순천시 등은 이날 오전 해고자 전원복직, 손해배상소송 취하 등에 합의했다. 회사 측은 비정규직 노조원 108명 전원을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현대하이스코 협력업체에 취업시키기로 했다. 또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내년 주주총회의 의견을 거쳐 취하하되, 취

하 전까지 가업류 등의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사측과 노조가 서로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징정 등도 취하하기로 했으며, 노조원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하에 공동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협력업체 사무실에 노조사무실을 두기로 했으며 현대하이스코는 협력업체와 노조 간 합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는 조항을 뒀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영원한 햄릿' 원로배우 김동원씨 별세



원로 연극배우 김동원(사 진)씨가 지난 13일 오후 6시 25분 서울 이촌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관려기사 20면) 1933년 배재고등보통학교 5학년 때 '성자의 샘'에 출연해 배우로 살 것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진 고인은 1994년 국립극단의 '이성계의 부동산'을 끝으로 300여 편의 연극에 출연했다. 1951년 국립극단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극단 실험 시절 대구 키네마

극장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햄릿을 맡아 열연했으며 이 때문에 '영원한 햄릿'이란 별명을 얻기도 한 연극계의 산 증인이었다. 주요 연극 작품으로는 '자명고',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세일즈맨의 죽음', '뜨거운 양철치붕 위의 고양이', '파우스트' 등이 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포럼(1982), 보관문화훈장(1990), 3·1문화상(1995) 등을 받았다. 유족으로 부인 홍순자 여사와 아들 덕환(전 쌍용그룹 사장)·진환·세환(가수)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15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7일 오전. 02-3410-6915. /연합뉴스

“빵 선물속 몰랐던 상품권 춘지 해당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이모(여)씨가 서울 강서교육청을 상대로 낸 건축차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과고는 건축차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부모들이 빵과 유사한 선물을 하면서 그 안에 금품을 넣어주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빵 이외에 다른 금품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부모가 자녀교육 상담을 마치고 빵을 선물로 주고 가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 둔 행위 자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로부터 빵과 책이 들어있는 소품백을 받았다가 학부모가 가고 1~2분 후 교실에 들른 서울교육청 특별감찰반에 내용물을 압수당했다. 소품백에서는 빵과 서류봉투 안에 든 책이 발견됐고 책 안에는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이 끼워져 있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곽내영교육학) featuring various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Modern Vocational College' (현대직업전문학교) highlighting job training and exam preparation.

Advertisement for 'Mumung High School' (무등고시학원) for civil service exam prepar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Gwangju Gosihakwon' (광주고시학원) for public service exam preparation, featuring a 96.7% success rate.

Advertisement for 'Modern Vocational College' (현대직업전문학교) with a list of courses and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Gyeongnam University' (김영대학면입학원) for university entrance exam preparation.